

『거절당한 막내에서 왕이 된 다윗』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9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과정은 인간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용모가 뛰어난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 준비된 아들들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는 가족들조차 '후보'로 생각지 않아 들뜬 양을 치러 보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관심 밖에서 거절당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하셨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쁨 부음 받은 그를 곧장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의 동굴과 거친 들판을 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겪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고난의 세월은 혈기 왕성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연단이었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들어 가장 높은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도망자 노인에서 해방자가 된 모세』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1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은 화려한 화술을 가진 젊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말수조차 적어진 여든 세의 노인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스스로를 가리켜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모세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실패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며 철저히 자기 힘을 빼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지혜나 화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음을 만방에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이나 피가 많던 야곱처럼, 하나님은 허물 많은 모세를 선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완전한 주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십시오.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겉쟁이에서 큰 용사가 된 기드온』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9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가신 장소는 거창한 군사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무서워 포도주 틀 뒤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청년 기드온의 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별 떨고 있는 그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항변할 만큼 그는 보잘것없고 두려움 많은 존재였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으게 하셨으나, 결국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항아리와 췌불이라는 비상식적인 무기를 들게 하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셨고, 지극히 작은 인원으로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격도 용기도 부족했던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결코 실패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기드온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택하여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배반자에서 교회의 기둥이 된 베드로』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2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된 과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으나 늘 실수가 잦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배반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격 미달처럼 보였던 그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며 무너진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금홍'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깎아내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실패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권적 선택의 경수입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시고 더 큰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 세상을 뒤흔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 2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맏아들을 대하는 방식은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만큼이나 파격적이다. 당시 문화에서 큰아들이 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공격적인 모욕이었다. 아버지는 당장 아들을 내쫓거나 징계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화가 난 아들을 달래며 간곡히 권한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둘째 아들에게는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 수치를 무릅쓰셨고, 맏아들에게는 잔치 마당 밖으로 걸어 나와 비난을 감수하셨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이기심을 자신의 인내로 덮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발견한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고쳐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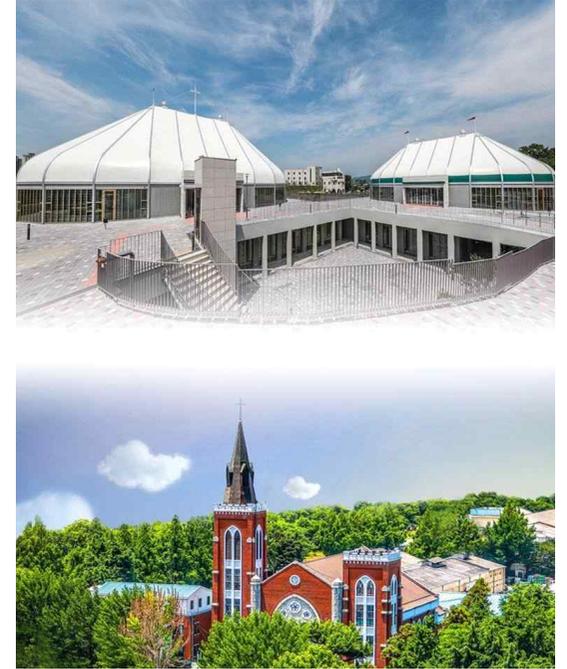
형 부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선행'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공로 의식은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빛진 채무자'로 만든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진 것이 없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두 아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들의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불한 희생이다. 둘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가 죽었듯이, 우리를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당신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 잔치 밖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예수님은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두셨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글을 읽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금도 잔치 밖에서 서성이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야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어서 들어오너라."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중』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